

교육부 검정

2018. 9. 14.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이삼형
김창원
양정호
안 혁
하동원
박찬용



» 표지 이야기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언어와 매체 생활에 참여한다.
언어와 매체를 이어 주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였다.

»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언어와 매체’는 2015년에 고시된 교육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던 ‘문법’과 ‘매체 언어’ 과목을 상위의 ‘사고·소통·문화’라는 관점에서 통합하여 새로이 설계한 과목입니다. 고급의 사고와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 활동이 언어와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저 머릿속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사고를 바꾸기도 합니다. 국가 대표 축구팀의 외국인 감독이 선수들끼리 ‘선배님’이나 ‘~형’이라는 말을 쓰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경기 중에는 서로 이름을 부르도록 한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벼-쌀-밥’ 같은 어휘의 체계, 주어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문법의 규칙, 우회적으로 돌려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은 의사소통의 관습 등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지요. 이 책의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의 본질과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피는 동시에, 언어를 대상으로 한 탐구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고와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 현상입니다. 휴대 전화를 잊고 나온 걸 깨닫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돌아간다면,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인터넷부터 뒤진다면, 화제가 되는 뉴스나 동영상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는 이미 매체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매체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와 함께 넓은 의미의 언어에 포함되는 동시에, 언어를 넘어서는 사회적·기술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체 없이 살기란 상상하기 어렵지요. 이 책의 ‘매체’ 영역에서는 매체의 다양성과 매체별 소통 원리를 살피고, 여러 매체 자료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능동적인 매체 생활의 기초를 닦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국어’ 과목에서 다양한 이해·표현 활동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언어와 매체’ 과목을 통해 언어와 매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언어와 매체를 활용한 사고와 의사소통, 문화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잘 공부하면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업과 직업 세계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눈은 깊이 있게 언어를 살피고 한 눈은 멀리 매체를 아우르며,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지은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씀

이 책의 구성과 특징

1 대단원 도입



- 대단원명, 중단원명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예측합니다.
- 대단원을 통해 익혀야 할 핵심 역량을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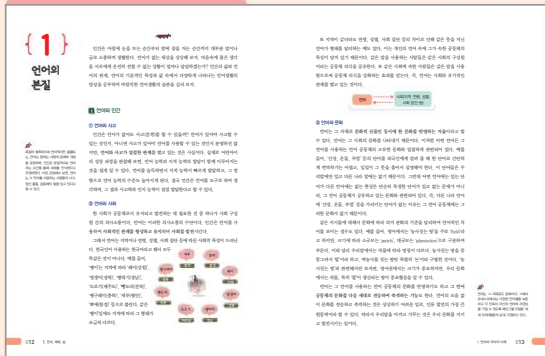
2 중단원 길잡이



-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이해합니다.
- 삽화를 활용하여 학습의 실마리를 이끌어 냅니다.
- 질문을 통해 단원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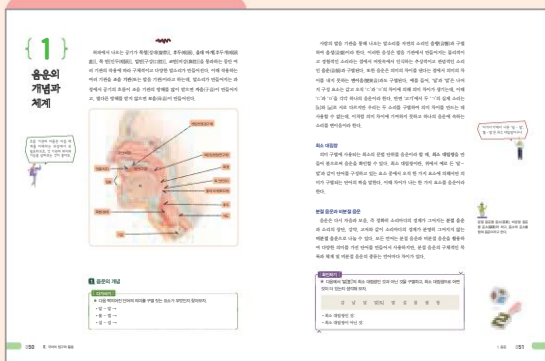
3 소단원 학습

본문 학습 (I, IV단원)



- 단원의 학습 내용에 관한 설명을 읽으며 개념과 원리를 이해합니다.
- 예제와 자료를 제시하여 배운 이론을 적용하여 읽습니다.

본문 학습 (II단원)



-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합니다.
- **다가서기** | 기본적인 문법 능력을 바탕으로 간단한 탐구 활동을 스스로 해 봅니다.
- **확인하기** |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법 탐구 활동을 심화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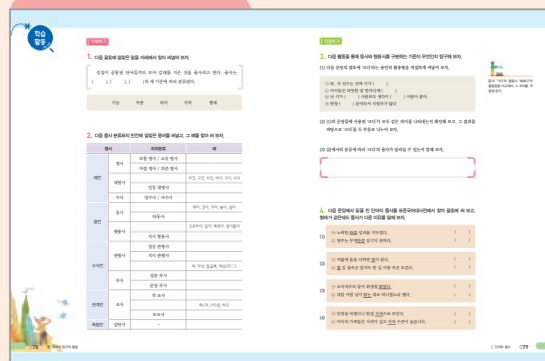
- '언어'와 '매체' 각 영역이 가진 독자성을 살리면서, 두 영역 간의 연계성을 추구하였습니다.
- 언어와 국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국어 생활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매체와 매체 언어의 탐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본문 학습 (III단원)



- 설명과 함께 활동 중심으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합니다.
- 학습한 개념과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학습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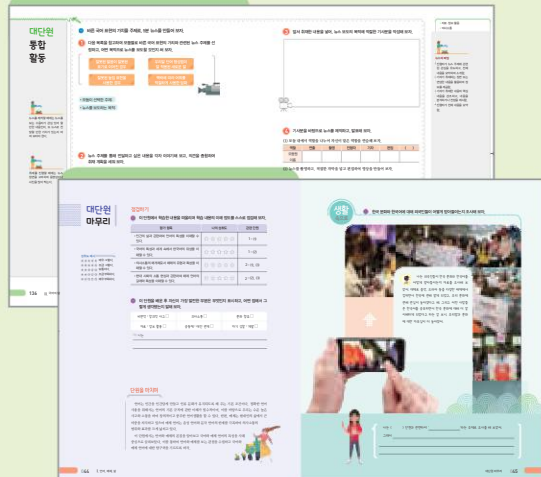
- **이해하기** |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 **적용하기** | 학습한 내용을 다양하게 응용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합니다.

4 중단원 정리하기



- 중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핵심 질문에 답하며 중단원 학습의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5 대단원 통합 활동과 대단원 마무리



- 실생활을 중심으로 여러 중단원 학습의 결과를 통합합니다.
- 대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스스로 평가합니다.
- **생활 속으로** | 대단원 학습에서 길러진 역량을 생활 속의 언어와 매체 활동으로 확장합니다.



이 책의 차례

I 언어, 매체, 삶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10

- (1) 언어의 본질 12
- (2) 국어의 특성과 위상 17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22

- (1) 매체의 본질 24
- (2) 매체 언어의 특성과 위상 27

3. 언어와 매체로 읽는 삶 한 권 읽기 32

 대단원 통합 활동 42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48

-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50
- (2) 음운의 변동 56

2. 단어와 품사 64

- (1) 단어의 품사와 특성 66
- (2)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81
- (3)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89

3. 문장과 문법 요소 96

- (1) 문장의 성분 98
- (2) 문장의 짜임 102
- (3) 문법 요소 109

4. 담화 124

-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126
- (2) 담화의 맥락과 효과적인 국어 생활 130

 대단원 통합 활동 136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1. 매체 언어의 특성 142

- (1)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 144
- (2) 표현의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 150

2.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156

- (1) 매체로 만나는 너와 나 158
- (2)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165
- (3) 매체로 설득하다 172
- (4) 매체로 빛은 예술 180

3. 생활 속의 매체 188

- (1) 매체와 사회·문화 190
- (2) 매체 생활의 성찰 194

대단원 통합 활동 200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1. 국어의 역사 206

- (1) 고대 국어 208
- (2) 중세 국어 212
- (3) 근대 국어 217

2. 국어 생활과 문화 222

- (1) 국어 자료의 다양성과 국어 문화 224
-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233

대단원 통합 활동 244

부록

- 자료 글 출처 249
- 이미지 자료 출처 253



I

언어, 매체, 삶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언어와 매체의
본질 탐구

자료 · 정보
활용 역량

언어와 매체의
특성

문화 향유 역량

한 권 읽기

자기 성찰
· 계발 역량

한 권 읽기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3

언어와
매체로 읽는 삶

 한 권 읽기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또한 언어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가 개발되었는데,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음성과 문자,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하고 있다.

이 단원은 언어와 매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어와 매체 언어를 탐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원이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 체계이며 국어는 세계 속에서 주요 언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매체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소통 방식이 있다는 점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깊은 탐구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핵심 질문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언어 생활을 보여 준다. 만약 인간에게 언어가 없다면 지금처럼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지 자기 생각을 말해 보자.

언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인간의 사고 및 사회·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어는 언어의 한 종류로서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과 개별 언어로서의 고유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과 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와 더불어 올바른 국어 생활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단원의 흐름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언어의 기호적·구조적 특성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 학습 목표**
-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개별 언어로서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의 특성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국어가 지니는 특성은 무엇일까?

국어의 위상

오늘날 국어는 세계어로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을까?

{ 1 }

언어의 본질



인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대부분 말이나 글로 소통하며 생활한다. 언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서로에게 온전히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인간의 삶과 언어의 관계, 언어의 기본적인 특성과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언어생활의 양상을 공부하여 바람직한 언어생활의 습관을 길러 보자.

1 언어와 인간

① 언어와 사고

인간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思考)를 할 수 있을까? 언어가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 영향으로 언어 능력의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하여 생각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이며 언어학자인 훔볼트는,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문화와 개성을 표현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정신 활동, 공동체의 얼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언어와 사회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다. 언어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난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팽이’는 지역에 따라 ‘패이(강원)’, ‘핑깡이(경북)’, ‘팽데기(경남)’, ‘도로기(제주도)’, ‘뽕도리(전북)’, ‘팽구래미(충북)’, ‘세루(평안)’, ‘뽀애(함경)’ 등으로 불린다. 같은 ‘팽이’임에도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또 지역이 같더라도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예도 있다. 이는 개인의 언어 속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 또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즉, 언어는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③ 언어와 문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간장, 온돌, 부럼’ 등의 단어를 외국인에게 알려 줄 때 한 단어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는 어렵고, 일일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이 단어들은 우리말에만 있고 다른 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언어에는 있는 단어가 다른 언어에는 없는 현상은 단순히 특정한 단어가 있고 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즉, 다른 나라 언어에 ‘간장, 온돌, 부럼’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와 관련된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지시물에 대해서 문화에 따라 의미 분화의 기준을 달리하여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농사짓는 땅’을 주로 ‘field’라고 하지만, 크기에 따라 소규모는 ‘patch’, 대규모는 ‘plantation’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작물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농사짓는 땅을 뭉뚱그려서 ‘밭’이라 하고, 벼농사를 짓는 땅만 특별히 ‘논’이라 구별한 것이다. ‘농사짓는 땅’과 관련해서만 보자면, 영어권에서는 크기가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작물, 특히 ‘쌀’이 생산되는 땅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도 한다. 언어의 도움 없이 문화를 전승하고 축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을 아끼고 가꾸는 것은 우리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도 문화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언어들을 보존하고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2월 21일을 ‘세계 모어(母語)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2 언어의 기호적·구조적 특성

① 언어의 기호적 특성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 곧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데, 이를 자의성이라 한다.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자의적이긴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 내에 일정한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사회성이라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언어는 자의성이 있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약속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역사성이라 한다. 언어의 기호적 특성 가운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언어는 기호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 말소리는 연속적인 음파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음, 모음과 같은 음소로 나누어 인식한다. 의미 면에서도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이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를 일곱 가지 색깔로 끊어서 표현한다. 언어 기호의 이러한 특성을 분절성이라고 한다.

언어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기 때문에 언어는 대상들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말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즉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언어 기호의 이러한 특성을 추상성이라고 한다.

② 언어의 구조적 특성

언어의 구조적 특성에는 창조성, 체계성, 규칙성 등이 있는데, 이 특성들 역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무한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창조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체계성이라 한다. 또한 이러한 단위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되어서 더 큰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를 규칙성이라 한다.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 단위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체계성을 토대로 구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할 때 유한한 기호로써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창조성이 이루어진다.



언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 것은 언어 사용자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나, 그 규칙만 잘 이해한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법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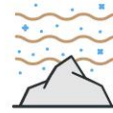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
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
우를 구분해 본다.

1. 다음 상황들에서 언어와 사고가 서로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 말해 보자.

- ① 한국 사람들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나무도 파랗다고 하
며,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 ② 학생들에게 “배고픈 고양이가 생쥐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들려주고, 일정 시
간이 지난 후 각자가 들은 문장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많은 학생이 “배고픈 고
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다.”라는 문장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 ③ 크레파스나 수채물감의 특정한 색을 ‘살색’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 색깔 이름이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하기 때
문에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 색깔 이름은 ‘연주황’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살구색’으로 바
뀌었다.

2.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영어로는 한 단어인 ‘눈[snow]’을, 이
누이트어에서는 네 가지 다른 단어인
‘땅 위의 눈[aput]’, ‘내리는 눈[quana]’,
‘바람에 날리는 눈[piqsirpoq]’, ‘바람에 날려 쌓이는 눈[quiumqsuq]’으로 표현한다.
우리말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의 ‘rice’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
해 우리말은 (), (), (), () 등 세분된 여러 단어로 대응한다.



(1)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



(2) 언어와 문화의 관계 측면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위 글에 언급된 단
어를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적용하기

3.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언어의 자의성에 관해 탐구해 보자.



(1)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현상을 자의성의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2)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도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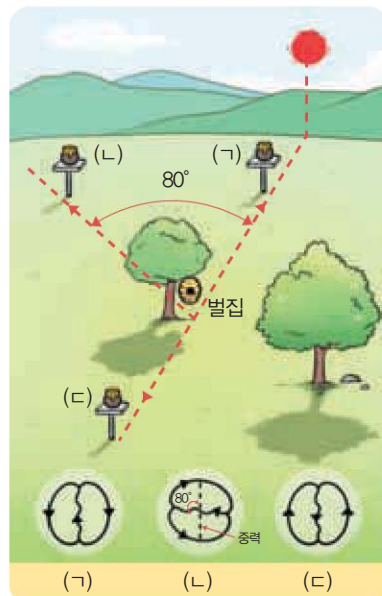


4. 다음을 읽고, “꿀벌의 의사소통 방식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언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자.

꿀벌은 어디에서 꿀을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서 다른 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방향, 거리 및 꿀의 품질을 춤을 추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 준다고 한다. [중략]

꿀벌은 꿀의 방향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면 8자의 가운데 선이 수직으로 위를 향하도록 춤을 춘다(⌈). 반대로 꿀의 방향이 태양과 정반대 쪽이면 8자의 가운데 선이 수직으로 아래를 향하도록 춤을 춘다(⌋). 그 외의 경우(⌊)는 벌집과 태양을 잇는 선과 벌집과 꿀의 발견 장소를 잇는 선과의 각도를, 중력을 나타내는 수직선과 8자 춤의 가운데 선과의 각도로 표시한다.

- 김진우, 『동물의 언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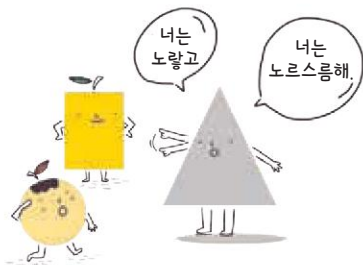
{ 2 }

국어의 특성과 위상

• **인구어(印歐語)**: 인도에서 유럽에 걸친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한다. 이때 한자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외래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외래어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별도로 분류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어, 개별 언어로서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시대에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속의 위상을 확인하면서 국어가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1 국어의 특성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는지, 주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언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국어도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개별 언어이기 때문에 국어만의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국어의 특성은 음운, 어휘, 문장(문법), 담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① 음운적 특성

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어를 포함한 많은 **인구어**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국어의 음운적 특성이다.

② 어휘적 특성

고유어와 외래어의 이분 체계를 가지는 여타 언어와 달리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진다는 점과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하여 있는 점 등은 국어의 어휘적 특성이다. 또한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셋노랗다’ 등과 같은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해 있고, 성별, 연령, 상하 관계 등에 따라 친족어와 호칭어들이 섬세하게 분화된 것도 어휘 면에서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③ 통사적 특성

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한 언어이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말을 듣는 상대에 관해 일정한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또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는 언어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④ 담화적 특성

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따르되 담화 상황에 따라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 말하는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냐 부정 질문이냐에 따라 대답을 달리하는 점에서, 항상 일정하게 대답하는 영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또한 국어에서 나타나는 담화적 특성이다.

2 세계 속의 한국어

국제하계언어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누리집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현존하는 언어의 수는 대략 7천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약 13억의 사용 인구를 가진 중국어이다. 그 뒤로는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힌디어 등의 순서인데, 이 언어들 모두 1억 명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어는 사용자 수에서 1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7천여 개에 달하는 언어의 수를 고려할 때 그 위상이 자못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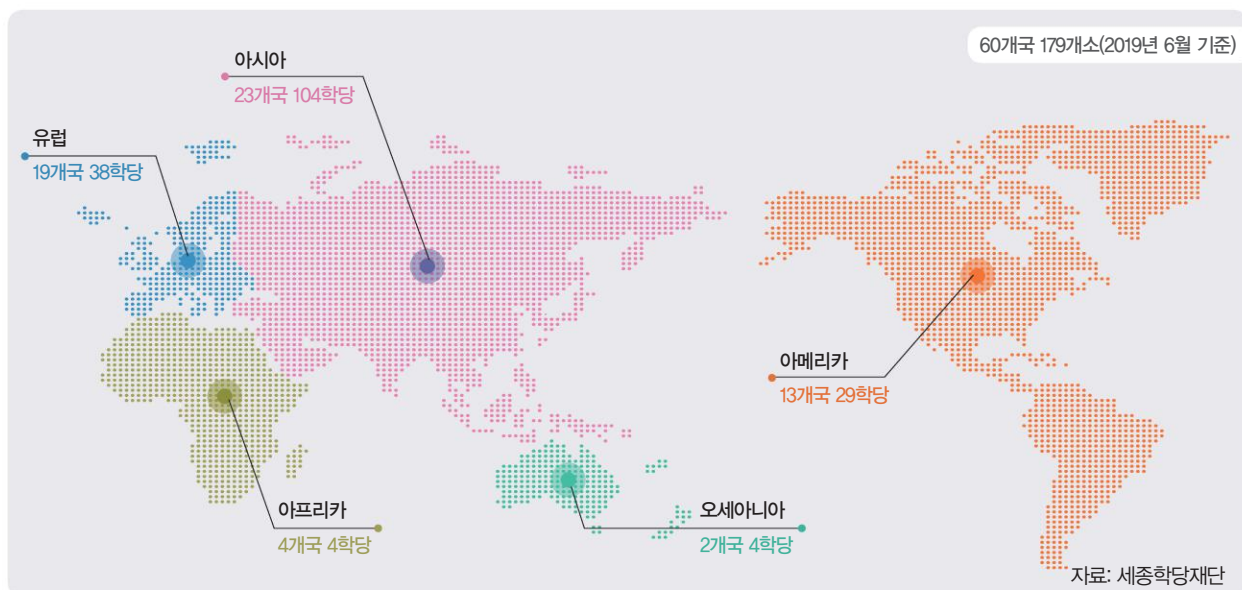
세계 속에서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도 커져 한국어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세종학당의 수도 점차 늘어나, 2019년 6월 기준 총 60개국에 179개소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세종학당은 재외 교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하계언어학연구소
<https://www.ethnologue.com>



세종학당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 세계 지도상의 세종학당 위치와 수